

# '퇴출 위기' 중소기업 전년 比 급증...113개→132개

### '2018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부실 中企 180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한 모양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부실장후기업은 180개사로 전년 대비 6개사가 증가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부실장후 기업을 판정하기 위해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 등급별(A·B·C·D)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C·D 등급은 부실장후기업으로 분류되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올해는 180개 중소기업이 구조

조정 대상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다. 중소기업 실적에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세부평가대상 기업의 실적도 특히 더 크게 하락해 부실장후기업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180개 중소기업 중 부실장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은 48개사로 전년 보다 13개가 줄었다.

하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은 132개사로 19개사가 증가했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반면 대기업 중에서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지난해 25개에서 올해 10개로 대폭 줄었다.

이에 전체 기업 중 부실장후기업은 190개로 전년 대비 9개사가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가공이 22개사로 구조조정 대상이 가장 많았다. 기계(20개사), 도매·상품중개(18개사), 부동산(14개사), 자동차 부품(14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철강(13개사)과 조선(10개사) 업종은 각각 전년 대비 5개사씩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났다.

관련 산업이 부진하면서 부실장후기업이 특히 많이 늘어난 분야다.

부실장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이 1조8000억원(7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부실장후기업을 반영하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대상금은 약 2995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행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하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6월말 기준 국제결제 은행(BIS) 비율이 15.51%에서 15.4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부실장후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 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입법에 맞춰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권은행과 자본시장 간 연계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스

## 내년부터 도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 1000cc 미만 경차 50% 할인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시민 여객선 운

은 1인당 최대 5000만~70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 도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중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동안 도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했다. 이에 해수부는 도시민 여객선 운

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온라인 거래' 파급효과...“물가 하락, 일자리 감소시켜”

### 이른바 아마존 효과, 고용·물가에 영향 미쳐

이른바 아마존 효과로 일컬어지는 온라인 거래 확대가 우리나라의 물가 하락과 도소매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김태경·박동준·최인협)는 과장 이용원·장태운 조사의 작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초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에 하방압력을 주고, 도소매업 취업자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효과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장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판매점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

지며 상품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이 고용과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보고서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매판매 증가에 대한 온라인 판매의 기여율은 2014~2017년 평균 83.9%로 과거(2002~2013년 장기평균) 수준 19.6%에 비해 4배 정도 급증했다. 온라인 거래 비중도 지난해 기준 18.2%로 중국(23.1%)보다는 낮으나 미국(9.0%)이나 독일(7.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확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진입 장벽이

완화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가격까지 떨어트렸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온라인 상품판매 비중이 상승할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킨 결과 2014년~2017년 중 연평균 0.2%p 정도 낮아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온라인 상품판매 비중을 2006년 4.3%에서 2017년 18.2%로 확대된 것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거래 확대에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가 늘어나면서 도소매업 취업자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2011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의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고용 감소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온라인 거래 확대에 연평균 도소매 취업자수가 1만6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지역 대표 수출기업 육성

### 선정된 31개 기업에 자금·수출보험·전시회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2018년 하반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 31개사를 선정하고, 지역 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육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우리지역 96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 능력, 기술력, 재무 및 혁신성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지정된 기업

은 2년 동안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자금·보증, 무역금융 등 여신 지원 시 금리와 수수료 우대, 수출보험료 할인, 해외마케팅 참여 등 총 78개 항목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번 2차에 선정된 31개사를 포

함하여 현재 우리지역 유요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총 99개사가 되었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김진형 청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대외신인도 증가 효과 또한 크다"며, 이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수소차업계, 2022년까지 연간 4만대 생산설비 구축



다고 밝혔다.

연료전지 스택이란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일컫는다.

이는 수소차 생산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연간 3000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1만1600㎡)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은 2022년 연간 4만대로 13배 증가한다.

수소차업계는 수소차 생산능력이 2022년 연간 4만대에 이르는 설비를 구축기로 했다.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차 가격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11일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열린 연료전지 스택(sack)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와 부품업체는 수소차와 관련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수소차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확대 등에 2022년까지 누적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300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내년에 올해 750여대에 비해 5배 이상인 4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과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겠다"며 "20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